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 용 배

시대를 앞서간 '행동하는 양심'

지난 화요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면(永眠)했다. 사람들은 '영욕(榮辱)의 삶을 살다 갔다'고 하지만, 역사는 그를 제대로 기억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 가장 오해받았던 사람이 DJ였다. 아직도 그를 떠올리면 죄송한 마음부터 앞선다. 필자의 고향은 대구다.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고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당시 나의 고향에서, DJ는 일부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빨갱이, 거짓말쟁이, 전라도' 프레임에서 벗어 날 수 없었다. 생을 마친 지금도 이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학시절 그의 저서인 '김대중 옥중서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중경제론'을 읽었지만, 너무 '똑똑해서' 싫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엔 정말 그랬다. 독서량이 풍부하지 못했던 20대 초반의 평범한 학생이 어떻게 본질을 볼 수 있었겠는가. 언론마저 통제되던 시절이었으니, 세상을 보는 창(窓)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진면목은 미국강의실에서 제대로 체험했다. 체육이 전공이었지만, 한국에서 전공한 행정학을 부전공 삼아 법대, MBA, 행정학 대학원생들의 토론을 경청하다 보니, 정치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보편적 가치'에 누가 가까운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당시 서구에서 바라보는 제 3세계 위대한 지도자는 아웅산 수지, 넬슨 만델라, 김대중으로 압축되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박정희, 김일성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거니와, 일부 알고 있는 교수님들도 "독재자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나, 독재자들은 공통점이 너무 많아 서로…" 정도에서 마무리했다. 당시에 받은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박정희와 김일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물론 조금은 유연한 입장이기에, 서구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미얀마의 군부가 아무리 총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아도 아웅산 수지를 극복하기는 힘들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관점을 적용하면, 김대중은 세계적인 지도자이다. 오천년의 우리 역사에서 한국인 중에서 전 세계에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유명한 사람 하나만 꼽으라면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DJ이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YS와의 경쟁구도는 국내에서만 적용될 뿐이다. '글로벌 인지도'만 적용하면, 한국정치인은 DJ와 나머지로 분류될 수 도 있다.

DJ의 개인적인 영향력 때문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국민의 정부'부터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정책적으로도 1971년 DJ가 내놓은 4대국 보장론이나 통일정책은 당시로는 파격적이었지만, 지금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물론 DJ도 인간이기에 역사적 및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권위적이고 권모술수에 능하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1987년 YS와 대통령후보를 놓고 타협하지 못한 사건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 망자(亡者)에 대해서는 허물은 덮고, 공(功)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정서이지만, DJ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은 공(功)과(過) 모두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 DJ가 아무리 허물이 있다한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역사적 가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DJ시절이 가장 행복했다"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가지도자가 철학이 확고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목도(目睹)하고 있지 않은가.

DJ가 남긴 수많은 어록 중에서,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사이에 있어야 한다"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음을 고백하면서, 청년시절 오해에 대해 이제야 용서를 구한다.

〈동명대 체육학과 스포츠경영트랙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DJ 서거' 소통과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국사회에 '소통과 화합'이라는 큰 화두를 남겼다. 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 고른 인재등용 등 지역주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신앙적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하는 등 관용과 화해를 실천해왔다.

지난달 13일 폐렴으로 입원한 이후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고인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화해의 메시지였다. 개인적 미움도, 계파도, 정치적 계산도 접고 보수와 민주 진영 인사들이 줄줄이 병원을 방문했다. 평생 동지이자 경쟁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등의 병문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화해와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뿌리 내린 화해와 소통의 흐름이 국내 정치에서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의 일정을 모두 접고 근조 기간을 갖기로 했고, 한나라당도 모든 지방행사를 연기했다. 당분간 정치권은 갈등과 투쟁을 벗어나 한결같은 애도 분위기 속에 대립각을 접고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 서거는 남북간 대화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된 조의 방문단을 파견할 계획이어서 이번 조문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에 의해 화해와 용서의 씨앗은 뿌려졌다. 중도와 실용을 향후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고인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여와 야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여야 정치 지도자는 물론 국민들도 고인이 남긴 화합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 지역화합, 국민통합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기술자립 중요성 일깨운 나로호 발사중지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가 또 다시 연기됐다. 나로호는 당초 19일 오후 5시 발사될 예정됐으나 7분56초를 남긴 시점에서 '자동발사 시퀀스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발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세계에서 열 번째로 '우주클럽' 회원에 가입하려는 희망도 좌절됐다.

나로호 발사 연기는 이번이 7번째다. 그만큼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우주강국도 로켓 발사의 100%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 더구나 신형 로켓은 성공 확률이 27% 남짓하다. 미세한 결함이나 사소한 부주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발사 지연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갖가지 난맥상에 국민들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우주 개발은 모두 8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나로호 발사는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개발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발사체 엔진기술은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지금까지 발사가 연기됐던 것도 모두 러시아의 일방통보에 의해서였다.

러시아 측은 1단 발사체 기술이 미사일 발사 기술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기술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는 2018년까지 나로 2호를 발사하고 10년 내에 7대 우주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선진국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우주강국은 선언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그에 걸맞은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전략적 선행 투자 없이는 기술개발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데는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자원을 투자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문 성 준

칼을 대지 않는 신경성형술

젊은 남자 환자분이 최근 발생한 요통 및 오른쪽 다리 통증이 심해서 외래로 내원했었다. 다른 곳에서 MRI 촬영을 통해 허리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본원을 찾은 환자였다.

요통으로 인해서 의자에 앉아있기가 어려웠고 엉치통증이 심하면서 다리에 저림감이 있고 앞으로 숙이면 통증을 더 심해진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MRI의 화질이 나빠서 다시 재촬영을 해서 아래허리 5~6번 사이 디스크가 파열돼 신경을 찌르고 있는 것이 통증의 원인이었다.

디스크로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신경치료 등에 호전을 보인다. 그러나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보전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1명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디스크가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보다는 디스크가 터져 내용물이 빠져 나와서(파열형)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환자분이 그러한 파열형에 해당됐다.

하지만, 수술적인 요법은 최소 침습수술을 하더라도 약 1~2개월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한 허리는 칼을 대면 안 된다는 믿음 또한 널리 퍼져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환자분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본인은 절대 칼을 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워 했다.

다리의 마비증상이 없어서 째지 않고 하는 시술 중 바늘을 이용한 경막외강박리술을 권유했고 환자분이 째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시술에 동의하고, 결과가 많이 호전돼 퇴원했고 외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막외강 박리술은 1989년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 통증치료센터 가보라쯔(Gabo Racz) 교수가 개발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치료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선 2006년부터 도입돼 시술이 시작됐다. 원래는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시술이나 디스크 환자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시술방법은 방사선 영상장치를 보면서 특수 주사바늘을 원하는 부위에 넣어 고정한 뒤, 눌려있는 신경주변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한다. 이때 특수 카테터가 이용된다. 치료의 원리는 약물 주입을 통해 디스크 탈출로 인해 생긴 척추신경 주위에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고 염증물질을 차단하는 것이다. 척추수술 후 신경 주변에 생긴 흉터나 상처(경막외 유착)을 제거해 신경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 치료하기도 한다.

째고 하는 수술은 보통 1~2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하지만 신경외강박리술은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바늘을 이용한 비수술 요법이어서 피부마취만 하고 약 15분 정도의 시술시간이 걸리면서 시술 당일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요통이나 다리통증이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감이 있는 환자는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MRI를 통해서 적절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압박에 의해 마비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 후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경막외강박리술을 권하고 싶다.

〈동광주우리병원 원장〉

기 고

송 영 철

왜 'F1 코리아그랑프리'인가

2010년 10월, 전남 영암에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상상을 초월한 스피드에 세계가 열광하고 그 도전을 200여 국가가 숨죽이며 지켜볼 것이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전라남도가 있고 이것이 'F1코리아그랑프리'다.

그동안 전남도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빅 이벤트인 F1 대회를 유치해 놓고도 알게 모르게 속앓이를 해왔다. 하지만, 늦게나마 F1대회의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F1대회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이고, 정부에서도 경주장 건설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F1경주장도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건설중이다. 성공적 대회개최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큰 가닥은 잡은 셈이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전남도가 이렇게 F1 대회 개최에 전심전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관광레저 산업에 대한 '가능성'이다. F1은 단순한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그 이상이다. 전 세계 6억 명이 TV로 경기를 시청하고 300여 개 매머드급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이른바 '글로벌비즈니스'의 장이다. 올림픽·월드컵에 이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절호의 국가 홍보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마니아층이 두터운 F1대회의 특성상 고정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세계 자동차 5대 생산국의 기반과 위상에 걸 맞는 모터스포츠 산업에 대한 도전이다. 사실 지금까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F1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동안 F1대회가 유럽시장 중심으로 개최된 점도 있지만, 이면에는 그만큼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반증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적은 투자비용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의 경우 10개의 경기장 건설에 2조 원이 소요된 반면, F1 경주장은 3천400억 원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7년간 개최되는 F1 국제대회 이외에 각종 관련 대회 유치, 자동차 성능시험장 등 연간 200일 이상 활용이 가능해 경제효과만도 2조 원에 이르고 2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 정부도 'F1코리아그랑프리'의 성공개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신중론에서 벗어나 강력한 미디어노출, 연관산업효과 등 F1만이 갖는 장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때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F1대회지원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최소 향후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개최될 'F1코리아그랑프리'의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F1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노력 없이 가만히 앉아서 성공이라는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회 주관사의 역할분담과 그에 상응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될 때 'F1코리아 그랑프리'는 성공한 지구촌의 축제로 우리와 후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남도기획조정실장〉

無 等 鼓

영웅의 모험

출발, 성취, 귀환-. 신화 속에 나오는 영웅이 거치는 전형적인 여로(旅路)다. 영웅이 가는 길에 모험과 시련이 없을 수 없다. 난세일수록 모험은 위험천만하고, 시련은 견디기 힘들다.

종교는 이런 모험과 시련이 생명의 길이라고 갈파한다. 엄청난 극기와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코란은 "앞서 가는 사람들이 치른 것과 같은 시련을 치르지 않고 지복의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한다.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유한다. 불경도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삶 자체가 모험이라고 강조한다.

영웅의 여행 목적은 자신 보다 더 큰 어떤 것, 인류 구원이라든가 세계평화 같은 것들이다. 영웅은 설령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일지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가져다 줌으로써 인류를 살리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아서왕의 기사 랜슬롯은 칼날 같은 다리를 목숨 걸고 건넌다. 포로가 된 기네비어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도 영웅은 많다. 백범 김구나 몽양 여운형 등이다. 이들은 민족과 인류를 위한 삶을 살다가 불의에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드라마같은 영웅적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택했다.

엊그제 작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숱한 고초와 시련을 겪었다. 고인은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다가 납치돼 현해탄에 수장될 뻔했다. 80년 서울의 봄 이후 등장한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사형선고, 투옥 6년, 망명 10년, 가택연금 55차례 등을 당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대통령에 올라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영웅의 모험은 끝났다. 민주주의 완성과 민족통일이라는 그의 염원은 이제 후손들의 몫이다. 영면하시길 빈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재래시장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해야

희망근로 상품권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매달 25만원, 광주시 전체로 20억원 가량 지급되어 6개월간 120억원대의 상품권이 유통된다. 지난해 재래시장상품권이 유통된바 있어 시장상인들도 고객의 상품권 사용이 매출을 증대한다는 좋은 인식이 상인 개개인에게 심어져 있다.

희망근로상품권은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해진 액수의 채권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현금과 같이 취급하여 사용하는 모두를 친절하게 맞이한다. 우리 봉선시장 상인회는 다양한 점포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매력있는 시장이라고 자부한다. 훈훈한 정감이 넘치는 친절로 상품권사용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용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잔액환불도 자유롭게 하여 준다.

시장상인은 상품권 취급으로 매출이 오르므로 스스로 상품권을 선호하게 되고, 희망근로자는 상품권을 선호하는 가게를 더 찾게 될 것이다. 봉선시장 상인회에서는 재래시장에서도 상품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되었으면 한다. 또한, 활발한 상품권 유통이 지역상거래질서로 이어져 재래시장의 매출 증가와 상품권가맹점으로서 가치상승에 힘입어 백화점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본다.

▲이충남·광주시 남구 봉선동

운전자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때 미소 지었으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분들은 항상 "안녕하세요, 고객님!"이라고 인사를 하며 운전자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상대방을 주시하고 인사를 한다. 물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이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급하다 보면 앞선 운전자들 중에 거의 80~90%는 전혀 반응이 없거나 인사를 받지도 않고 묵묵부답이다. 얼굴 표정은 굳어있고 웃음도 없고 그저 통행카드와 돈만 쑥 내민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시비를 걸 태세인 듯, 인상을 벅벅 쓰면서 화를 내는 듯한 표정으로 대하기도 한다.

목소리는 높은 톤으로 말끝을 올려서 상냥하게 운전자를 맞이한 이 톨게이트 수금담당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나라 국민은 원래 관상학적으로, 그리고 안면 골격 자체가 미소를 짓는데 인색한 구조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도 좀 고쳐져야 할 것 같다. 서로 웃으며 대하는 태도, 이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이민경·광주시 동구 대의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